

팔순 할머니 영전에 바쳐진 6·25 훈장

戰死 남편 그리며 홀로 살다
훈장 받기 이틀 앞두고 숨져

“평생을 고대해온 남편의 훈장
인데...”

6·25 전쟁때 전사한 남편을 그리며 홀로 평생을 살아온 팔순 할머니가 남편의 무공훈장을 대신 받기로 한 날을 이틀 앞두고 숨겨 주위를 안타깝게 하고 있다.

23일 육군 31사단에 따르면 남편을 대신해 6·25 무공훈장을 받기로 한 남의생(80)씨가 22일 밤 10시50분께 폐암 합병증으로 숨졌다. 육군이 24일 남씨에게 남편 대신 훈장을 전수기로 한 날을 겨우 이틀 앞두고 세상을 등진 것이다.

갑작스런 죽음에 31사단은 23일 남씨의 영전 앞에 훈장을 바쳐야 했다.

남씨는 58년 전인 1951년 5월 29일께 남편 신모(당시 22세)씨가 강원도 641고지 전투에서 전사한 뒤 평생을 홀로 살아왔다. 남씨는 22살에 남편을 잃고도 시부모를 극진히 모시고 종손인 남편의 대를 잇기 위해 조카를 아들

로 입양, 대학교수로 키워내 주위의 칭송을 받아왔다.

이에 지인들은 전란 속에 잃은 남편을 가슴에 묻은 채 평생을 살아온 남씨의 한을 달래주기 위해 남편의 훈장을 신청했고 결국 58년 만에 훈장을 대신 받게 됐다.

남씨는 폐암 투병 중에도 남편의 훈장을 받는다는 소식에 뿔뿔이 기뻐했으며, 지난 20일 집에서 머리를 감다 실신, 병원치료 사흘 만에 숨을 거뒀다. 당시 남씨는 고운 모습으로 훈장 전수식에 참석하고 싶은 마음에 파마를 하기로 하고 미용실에 가기 전 쓰러진 것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아들 신해진 교수(전남대 국어국문학과)는 “어머니는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22살인 아버지의 모습을 마음속 깊이 간직하고 계셨다”며 “늦게나마 훈장을 받게 됐다는 사실에 그토록 기뻐하셨는데...”라며 말을 잊지 못했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응급처치는 이렇게 '1339광주응급의료정보센터' 주최로 23일 광주시청 시민홀에서 열린 '구조 및 응급처치교육 시연회'에서 초등학생들이 교육용 마네킹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을 시연하고 있다. 1339광주응급의료정보센터는 지난해까지 모두 2만 여 명에게 응급처치교육을 무료로 실시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학력 부진’ 광주·전남 133개교 보조강사 배치·최대 1억씩 지원

교과부 올해부터

광주·전남 133개교 등 학력 부진
학생이 많은 전국 초·중·고교에 9월
부터 학습 보조 강사가 배치되고 별
도 예산이 투입되는 등 정부 차원의
특별 지원이 이뤄진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해 10월 시행된 국가 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학력 부진 학생이 평균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난 총 1천440개 초·중·고교를 선정해 학력 향상 중점학교로 지정해 집중적으로 지원한다”고 23일 밝혔다.

1천440개 학교는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와 각 시·도 교육청의 현장 실사를 거쳐 선정됐으며, 초등학교 733곳, 중학교 305곳, 고등학교 402곳(일반계 223곳, 전문계 179곳)이다.

지역별로는 광주 22곳, 전남 111곳, 경기 347곳, 서울과 경남 각각 154곳, 전북 126곳, 경북 120곳, 충남 86곳, 충북 82곳, 강원 59곳, 대구 46곳, 부산 43곳, 제주 35곳, 인천 27곳, 울산

15곳, 대전 13곳 등이다.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이 초등학교는 5.4% 이상, 중학교는 20% 이상, 일반계고는 20% 이상인 학교가 지원 대상으로 선정됐다. 이들 학교에는 올해부터 3년간 학력 향상을 위한 집중 지원이 이뤄지게 된다.

처음 1년 동안은 학교당 3천만원에서 최대 1억원까지 총 840억원의 정부 예산이 지원되고, 그 이후부터는 시·도의 투자를 의무화해 지원 예산을 늘릴 계획이다.

특히 예비교사, 퇴직교원 등 총 4천 793명을 ‘학습 보조 강사’로 채용해 오는 9월부터 각 학교에 배치할 예정이다. 이들은 정규 수업시간에 교사를 도와 부진 학생을 지도하거나 방과후에 개별 지도 등을 하게 된다.

학생, 학부모가 원하는 곳으로 찾아가 지도하는 '개인 교사 프로그램'과 대학생이 부진 학생들을 대상으로 과외 지도를 하는 '대학생 멘토링제'를 활성화해 나갈 방침이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장마 주춤 ... 불볕더위 기승

광주·전남에 많은 비를 내린 장마
전선이 약해지면서 이번 주말까지 불
별더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인
다.

광주지방기상청은 “장마전선이 의

주 광주·전남지역은 맑은 가운데 30도를 웃도는 불볕더위가 기승을 부릴 것"이라고 23일 예보했다.

기상청은 장마전선이 북상하는 29일과 30일께 광주·전남지역에 장맛비가 내릴 것으로 내다봤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오늘 날씨



해돋이 05시 19분

해질 19시 51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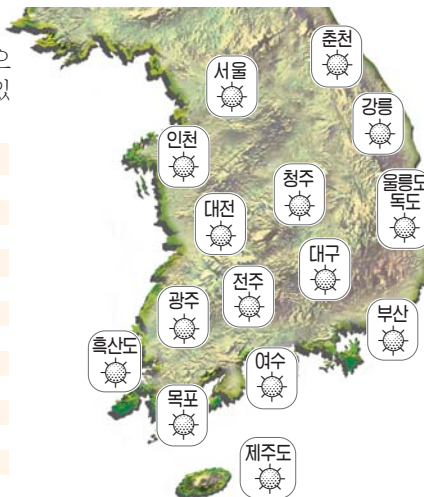
달출 06시 32분

달질 21시 20분

볼볼대위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맑겠으며 아침에 안개가 끼는 지역도 있겠다.

광역시도	날씨	기온
광주	맑음	18/32℃
목포	맑음	18/27℃
여수	맑음	19/27℃
완도	맑음	18/30℃
구례	맑음	17/30℃
매남	맑음	17/31℃
장흥	맑음	17/31℃
고흥	맑음	16/30℃
순천	맑음	19/29℃
영광	맑음	17/29℃
진도	맑음	17/30℃
전원	맑음	17/31℃
남원	맑음	17/32℃
흑산도	맑음	124/℃



바다	풍향	파고	일몰	해질
서해 남부 앞바다	서~서	0.5~1.0m	03:16	08:32
연안 앞바다	서~서	1.0~1.5m	15:13	20:30
남해 서부 앞바다	서~서	0.5~1.0m	10:00	04:02
연안 앞바다	서~서	1.0~1.5m	22:42	16:04

◇주간날씨

날씨	25(목)	26(금)	27(토)	28(일)	29(월)	30(화)
날씨						
최저/최고	19/33	20/32	21/31	22/30	22/28	22/29

기상안전내선화 :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전남 통학버스 ‘돈 먹는 하마’

356대에 137억 '1인당 100만원' ...개선책 시급

전남도교육청이 교통오지 학생들을 위해 운영중인 통학버스가 비효율을 적어서 임차 확대나 거점관리 등 개선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3일 전남도교육청과 도 교육위원회 유제원 위원에 따르면 지난해 각급 학교 통학버스 356대에 소요된 비용은 총 137억4천여만원으로 수송 대상학생이 1만3천870명임을 감안하면 1인당 99만1천원에 달했다.

이는 버스 임차 운영 경비 1인당 10만 4천원에 비해서는 9배 이상, 버스비 직접 지원 22만5천원과 비교해도 지나치게 많은 액수다. 특히 노선버스가 여의치 않아 택시비를 지원(108만 4천원)받는 것과 비슷한 수준이다.

하루에 5차례 이상 운행하는 통학 버스는 10.4%(34대)에 불과하고 운행시간도 86%인 306대가 3시간 미만으로 조사됐다. /박진표기자 lucky@

[illegible]